



김윤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세상 살기, 나만 힘든 것일까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자기 뜻이든 아니든 관계 없다. 부모도 꼭 이런 자식을 갖겠다고 특정할 수도 없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의 유전자(DNA) 대로 자식을 낳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불교에서는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는 사하라사막 모래알 같이 많은 세세(世世) 생생(生生)의 인연이 쌓여서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나고, 부부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생에서 웃기 한 번 스치는 것도 큰 성(幸)에 단단한 호두를 가득 쌓아 놓고 하늘나라 선녀가 3년에 한 번씩 다녀가면서 선녀의 하늘 하늘한 옷자락에 그 많은 호두가 모두 남아 없어지는 세월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고 불경(佛經)은 그 냥 오랜 세월이라고 하면 감을 못 잡고 잘 모르는 중생들을 위하여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참으로 신비로운 세상이고, 신비로운 인연이고, 신비로운 삶이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밀 모를 고독과 불안, 절망과 소외(疏外), 한계상황의 현실 속에 그대로 내던져진 피투성(皮投性)의 존재라고 말한다.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하고 괴로운 역사적 실존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2천년 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게 될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장 28~30절)과 위안과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 우리 인생을 '고통의 바다 고행(苦海)'라고 부른다. 그 고행은 인간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즉 탐진치(貪瞋癡)가 원인이라고 가르친다. 이 탐진치, 세 가지 독(三毒)을 없애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덧 없고(諸行無常),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으며(諸法無我), 본래의 아름다운 자리는 고요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열반정적)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독교와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의 삶은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힘들다. 나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지만, 남이나 여자,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가 각각 수고하고 무거운 자기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자기만 뜻 대로 잘 안 되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되는 일 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고 실패와 좌절의 쓴 맛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인생은 크고 작은 문제의 연속이다.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칼럼

그러면 이 바람 많고 흩 먼지 날리는 고달픈 풍진(風塵) 세상을 어떻게 살아 가야 할까. 어떤 사람은 오직 돈을 받고 돈 버는 재미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며 권력에 도취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자랑하고 만족하며, 어떤 사람은 더 큰 꿈을 실현하려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얻으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름다움에 취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수천년 동안 수많은 종교와 학문, 도덕과 윤리, 풍습과 생활, 보수와 진보가 인생의 길을 말하고 주장하고 설교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믿는 종교, 자기가 속한 조직, 자기가 깨달은 길만이 참된 진리라고 우겨대고 다른 것들은 잘못되었다는 편견과 배타(排他), 독선과 집착은 우리 인간 공동체에서 배척되어야 할 가장 나쁜 행태이다. 그러한 잘못된 탐욕과 편견이 끝없는 갈등과 대결과 전쟁을 불러왔다.

남을 역지사지(易地思之)해서 생각하는 배려와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 배려와 존중은 사랑, 자비, 인(仁), 덕(德), 관용, 포용 등 다른 말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가르치고, 불교에서는 자비가 최고의 덕목이라는 뜻으로 '자비 무적(慈悲無敵)'을 가르치고 있다. 건국 시조 단군(檀君) 할아버지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을 개국 이념으로 삼았다.

깨지기 쉽고 변하기 쉬운 연약하고 불안정한 우리네 인생살이, 수없이 무너지고 상처 받아도 끝 없이 다시 일어선다. 이 세상에 단 하나 뿐인 너무나 소중한 귀한 생명의 소유자임을 깊이 자각하고, 늘 자신을 성찰하고 남을 배려하면서 자기 삶의 주체적 창조자로서 선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론 요지(要旨)이다.

기고

군민과 2030세대 공직자들이 함께하는 소통·상생의 군정을 꿈꾸며

장흥과 첫 인연을 맺은 2030세대 공직자들이 디자인하고 만들어 갈 장흥의 희망찬 미래 행정을 떠올려 보며, 실무 주역이 된 2030세대 공직자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개성 넘치는 아이디어가 군 행정에 자유롭게 개진되고 그 뜻깊은 지혜들이 새롭게 디자인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장흥은 산세가 수려하고 온화하여 그 기운을 받아 군민들 또한 정이 많고 타 지역에서 온 이주민에 대해서도 배타적이지 않고 정을 베풀며 오순도순 함께 어울려 정겹게 살아가는 고장입니다.

낮선 환경에서 공직의 첫발을 내딛게 된 2030세대 공직자들이 군민들과 다양한 만남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만들고 또한 지역민들이 좋은 멘토가 되어 주셔서 우리 2030세대 공직자들이 장흥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정착해서 장흥을 위해 열정을 갖고 역량을 맘껏 발휘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30 세대 공직자 여러분! 원활한 공직 생활을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협력을 얻고 이해를 구해 가며 업무를 추진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때론 까다로운 민원으로 인해 많이 난감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한 번 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주민들을 어렵게 대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다 보면 소통의 창이 자연스럽게 열릴 것입니다.

직장 동료나 선배 공직자들에게 먼저 다가 인사하고 격이 없는 소통을 위해 먼저 나서 보세요. 업무에 대한 상의와 조언을 먼저 구하고 업무 협조에 있어서는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나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세요. 장흥과 함께 성공하고 장흥과 함께 행복해지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의 힘이 들고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회피하거나 떠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새로운 벗으로서 장흥에 반해 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반하면 대사가 즐겁고 행

복해집니다. 월급을 타면 제일 먼저 장흥에 나의 작은 꿈 터(땅)를 장만해 보세요. 미래의 내 꿈과 희망이 장흥에 있어야 장흥에 대한 애착심이 생기고 일하는 재미도 보람도 크게 느껴질 테니까요.

모르는 주민과 마주했을 때 또는 찾아오는 민원인과 눈이 마주했을 때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외면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떠날 때까지 고개를 못 들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 힘든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 말고 의식적으로 먼저 다가가고 큰소리로 인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몇 번만 하다보면 좋은 버릇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실령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하여 그 사람이 어리둥절해하더라도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를 칭찬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귓전에 들려올 것입니다. 나의 좋은 이미지 모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여 년 후 장흥군청 중간 간부로서 군민들에게 존경 받으며 본분에 최선을 다해 가는 나의 의지와 멋진 모습을 미리 상상해 보세요.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우리 2030세대 공직자들이 앞으로 장흥에서 평생을 머물고 살아가야 할 제 2의 고향이라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사랑의 힘이 2030세대 공직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업무에 대한 의욕을 키우고 장흥에 대한 애착심을 키워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봉사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과 행복의 운명공동체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2030 신세대 공직자들이 지금 조금 서툴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업무에 숙련되어 가고 자신감을 키우면서 하나하나 성과를 이뤘고자 노력하는 그 아름다운 자세와 마음을 예쁘게 봐주시고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삶속에서 공직의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뜨거운 응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김상인 장흥군청소통민원실장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인생을 멀리 보며 살자

인생(人生)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말한다.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도로 주행을 처음 하는 초보운전자에게 길을 멀리 보고 가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가까이 보고 운전하면 멀리 전개될 도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해 사고가 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앞의 일에 몰두하며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나, 때때로 고개를 들고 멀리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생을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멀리 보아야 인생 전체를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삶 전체와 앞으로 살아갈 날 전체를 바라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인생길에서도 가까이 있는 눈앞에 전개된 일과 물건에 신경을 쓰고 몰두하다 보면 먼 앞날의 전개될 일이 실패할 수 있다. 인생 나그네도 시점인 출생에서 종점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어떻게 앞을 보며 갈 것인가가 중요시되고 있다. 인생에서 멀리 봐야 하는 것은 나의 육체와 건강에 대한 것과 내가 하는 일과 직업에 관한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인 지식 정보 재산에 대한 먼 앞날을 보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인간관계에서 나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내가 죽은 후 어떻게 될 것인가 까지 멀리 보면서 현시점에서 바른 판단과 계획

을 세워 출발하고 전진해야 한다. 인생은 멀리 종점을 보면서 출발해야 하며 멀리 보면 가까이 있는 길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하루가 시작될 때도 하루의 끝인 석양이 되기까지 내다보는 사람은 하루의 시간 관리를 잘하게 된다. 지금 나에게 가진 것이 있지만 멀리 보면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으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멀리 내다보면 어렵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도 하며 지금은 잘 되지만 멀리 보면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사양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에 대해 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인생은 인생이 끝나는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다보면서 내가 가진 것을 정리하고 내세에 대해 준비도 해야 한다. 씨앗을 뿌리는 자는 추수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멀리 보고 준비와 가꾸기를 해야 하며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사람도 멀리 내다보고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미래가 보람 있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일을 해야 한다. 따라서 멀리 보아야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

멀리 보는 사람은 시간 전망이 긴 사람이며 현재의 행동을 신중하게 하고 미래를 성실히 준비한다. 위대한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은 먼 미래를 길게 보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멀리 본다는 것은 죽은 후까지 어떻게 전개될 것인

칼럼

가를 멀리 보아야 하며, 죽음 이후의 모습까지 멀리 보는 인생이 귀하고 복된 인생이다.

눈앞의 일이 어렵고 괴롭더라도 멀리 보면 그것이 성공과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현재의 만족과 쾌락이 멀리 보면 불행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인생길 험하고 어렵다고 하는 데 초보운전자처럼 근시안으로 가깝게 보고 운전하다 실패와 사고를 당하지 말고 멀리 보면서 여유 있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달려야 할 것이다.

하루를, 한 달을, 일 년을 시작하면서 끝을 보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 부모님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효도하는 자식으로서 먼 앞날을 내다보며 효행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안 될 것이며 자식을 둔 부모의 처지에서 장차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내가 지금 자녀에게 하는 일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지의 앞을 내다보아야 하며, 오직 자식을 위해 내 인생이 희생양으로 살고 있다면 먼 앞날을 보면서 한 번뿐인 내 인생의 방향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가난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면 가난을 잊고 교만하고 남비벽이 심해지는데 멀리 보면 가난과 부는 고정한 것이 아니라 순환하고 있다는 역사의 시사점을 보면서 오늘의 가진 자는 멀리 더 멀리 앞날을 보면서 실속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만남의 인간관계에서 일시적인 이익과 자기 욕구를 충족하려고 서로 다투며 불편한 인간관계로 살기도 하는데 멀리 보면 다 부질없는 일이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길을 가려면 시작할 때 멀리 끝을 보면서 계획을 세워 출발해야 하며, 보람 있는 삶의 인생은 남을 돕기 위해 많이 가진 자가 되는 것이며, 많이 가진 것을 보람 있게 베풀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 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정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small>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체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small>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맘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